

제 3 집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항일가요(기타)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3집
항일가요(기타)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仁德

责任校对: 南今月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3辑: 朝鲜文 / 崔三龙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6
ISBN 978-7-5449-0628-9

I. 中… II. 崔…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集-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86250号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3辑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46.5 字数: 698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28-9 (民文)

版次: 2009年9月第1版

2009年9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7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찬위원회

- 고 문: 김병민
- 기 획: 리성권
- 명예주필: 권철, 김동훈
- 주 필: 허휘훈

- 편찬위원: (가나다순)

김경훈(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김동훈(전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김호웅(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주임, 교수,
문학박사)

김운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권철(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교문, 교수)

리광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전성호(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채미화(연변대학 연구생원 원장, 교수, 문학박사)

최문식(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소장, 교수)

최삼룡(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허경진(한국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휘훈(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문학
박사)

제3집

항일가요(기타)

책임편찬: 최삼룡

편 찬 자: 최삼룡 권철 권기호

간행사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탁월한 저력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해냈다.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는 삶의 슬픔과 지혜, 역사를 헤쳐나가는 선조의 힘이 숨배여있다. 하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난세기 문학사료는 소중한것이고 두고두고 읽어보아야 할 보전(宝典)으로 남게 된다.

과경(跨境)민족으로서의 중국 조선민족은 19세기 후반기 이래로 수차의 문화적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른바 개화기의 격류속에서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갈등, 한문문학과 국문문학간의 교체를 경험했고 식민지시대에는 국문문학의 문체혁신과 일제에 의해 책동된 전통문화의 쇠퇴, 말살이라는 시련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이민 혹은 정착민으로 생활해온 우리 겨레의 지조있는 애국문인들은 결코 붓대를 던지지 않았다. 류린석, 김택영, 신규식, 신채호, 안중근, 이상룡, 김정규, 김소래, 최서해, 렬상섭, 주요섭, 최상덕, 강경애, 현경준, 김창걸, 안수길, 박영준, 황건, 김조규, 윤동주, 박팔양, 리륙사, 함형수, 리학성, 천청송, 김학철, 윤해영, 채택룡, 설인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문학도와 시인, 작가들이 바로 필설로써 그 시대를 증언해온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었다. 그들중에는 고국을 떠나 갈바람에 흩날리는 락엽마냥 정처없이 떠돌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허허넓은 만주벌판에서 간도아

리랑을 부른 망향시인이 있었고 하늬바람 불어치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 서안, 상해, 무한 등 천년고도에 떠돌이로 남아 언론매체를 빌어 “천고”를 울리고 “진단”을 노래하고 청구의 “광명”을 만방에 호소한 청년전위가 있었는가 하면 백산, 흑수, 송료, 제로, 태항, 중원의 고전장에서 용마일생을 수놓아가며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도 있었으며 려순, 나가사끼, 후꾸오까의 감옥에서 단지혈맹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절단해가면서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왔거나 끝내는 “한점 부끄럼없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암흑기의 푸른 별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자에 앞서 온몸으로 지탱해온 삶 그 자체가 더 고결하고 값진것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문화의 숲은 험결찬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부단히 충전시켜주는 불멸의 혈맥, 끈질긴 생명력의 고통으로 무성하게 자라고있으며 영광과 비애의 굴곡, 흥망과 성쇠의 기복이 교차되는 수많은 력사주체의 명멸을 간직한채 굳건하고 강인한 기백으로 오늘날까지 민족의 정기를 면면히 이어주고있다.

그들이 남긴 풍부한 문학유산은 그동안 중외(中外)학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굴연구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그 진면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조선족과 해방전 재중 한인, 조선인들의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 출판하는것은 정체적인 민족문학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남긴 문학자료는 지금도 중국 각지와 해외의 여러 도서관, 박물관, 당안관에 신문, 잡지, 일기, 필사본, 프린트본, 활자본 등 형식으로 흩어져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전집은 선배들이 중국땅에 남긴 문학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양하며 문학, 언어, 력사,

민속, 언론, 사회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학계 인사들에게 21세기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통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있다.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진수를 정리, 간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작업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20세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철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관계 선배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벌써 재중조선인 문학자료수집에 착수하였고 1990년에는 권철, 조성일, 최삼룡, 김동훈 등 네 연구원의 공동집필로 된 《중국조선족문학사》를 공개출판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는 한국 숭실대학교 인문대학과의 공동연구과제로서 소재영, 권철, 김동훈, 조규익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한 《연변지역 조선족문학연구》를 펴냈다. 같은 시기에 김영덕, 최문식 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고적연구소에서는 《류린석전집》, 《김택영전집》, 《운동주유고집》, 《한양가》, 《연변조사실록》 등 중국지역에서 발굴, 정리한 17권의 민족고전을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학현장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두 연구소산하의 수십명 연구원들은 연변의 각 현, 시, 북경의 백림사, 상해의 서가회, 남경의 룡반리, 심양시 서류관, 할빈, 대련, 서안, 남통 도서관, 박물관 등 중국 국내 수백곳의 자료관을 누비면서 해방전 우리 민족의 흩어진 문학자료들이 게재되어있는 《천고》, 《진단》, 《독립신문》, 《민성보》, 《북향》, 《만선일보》, 《카톨릭소년》, 《광복》, 《신한청년》, 《조선의용대통신》, 《한민》, 《연변문화》 등 신문과 잡지 그리고 지난 세기초부터 이 땅에서 류전되었던 《백두산민담》, 《장백산강강지락》, 《초등소학수신용우화집》과 《싸트는 대지》, 《재만조선인시집》, 《혈해지창》 등 최초의 소설집, 시집 및 극본들을 속속 발굴하였으며 무려 1500만자에 달하는 작가문학자료와 800여수의

민요, 2000여편의 전설과 민담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가 아니라 밭로 땅을 기어다니는 “지네”와 같이 지나간 력사와 문화현장에 뛰어들어 문학현상 자체를 자기의 피부로 촉감하고 확인함으로써 오늘의 이 방대한 민족문학사료전집의 탄생을 준비하였던것이다.

본 전집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첫째, 본 전집에는 중국 조선족작가와 재중 한인, 조선인 작가들이 건국(1949년)이전에 창작한 모든 시, 소설, 일반산문, 극작품 등 일체의 문예작품들을 수록한다.

둘째, 우리 문학의 세가지 큰 갈래인 조선문문학, 한문문학, 구비문학을 통해 력사적으로 이룩한 모든 양식을 함께 수록하도록 한다. 건국전에 창작된 작품을 30권에 나누어 일차적으로 간행하고 이를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사료전집으로 되게 한다.

셋째, 구비문학작품은 건국전에 수집된것과 건국후에 수집된것을 망라하며 그 내용이 해방전에 이미 구전으로 전승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1차 간행본에 포함시킨다.

넷째, 언어상으로나 력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부 원전은 원전과 현대역을 동시에 수록하려 한다. 현대역을 통하여 한문과 원전의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원전의 제시로 그 연구의 자료가 되게 하려 한다.

다섯째, 건국전의 작가문학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순으로 배열하고 구비문학은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한다. 건국이후의 작품은 2차적으로 그 출간을 계획해보려 한다.

1차 간행에 교부된 작품집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집-제3집 시(조선문)

제4집-제5집 한시
제6집-제12집 소설
제13집-제15집 산문
제16집 희곡
제17집 민요
제18집 문헌설화
제19집-제20집 전설
제21집-제29집 민담
제30집 별책(색인)

끝으로 본 전집이 편집, 출판되는 동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협력과 질정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업에 동참해주
신 편찬위원, 책임편자, 역주자 여러분과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허위훈
연변인민출판사 사장 리성권

일러두기

이 전집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1. 중국조선족의 기록, 구비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재중 한인(漢人), 조선인이 중국지역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2. 20세기 전반기에 창작, 발표된 문학작품을 일차적선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전집 각권의 출판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한시와 기타 한문(漢文)으로 씌여진 원전은 매편마다 원문을 앞에 싣고 역문을 뒤에 함께 수록하여 상호 참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5. 원전에 나오는 일부 지명, 인명, 전고, 방언과 알기 어려운 글자, 루락, 오기 등에 대해 필요한 주를 달았다.

주석표기는 원문(혹은 역문)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하단에 각주(脚注)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6. 고한문 원전은 번체자로 표기하고 리해가 어려운 한자어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 병기하였다.

7.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중국에서의 현행 조선말 규범원칙을 따르되 어학적, 민속적 가치가 높은 해방전 원전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8. 이 전집에서 사용한 주요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음이 같은 한자를 병기함.
- 2) []: 음은 다르나 뜻이 같을 때나 혹은 풀이한 한문을 병기함.
- 3) 《 》: 책, 신문, 잡지 이름을 나타냄.
- 4) “ ”: 작품명, 대화나 인용을 나타냄.
- 5) <?>: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냄.
- 6) □: 원전 또는 원문에서 누락된 문자를 나타냄.
- 7) 주석은 ①, ②로 표시하여 해당 면 하단에 표기함.

항일혁명가요의 수집과 출판에 대하여

최삼룡

1.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제4집으로 《항일가요》가 출간된다.

이 책에는 중국, 조선, 한국에서 수집, 정리, 출판된 항일가요와 혁명가요 그리고 민족의 독립구국의 뜻이 담긴 가요 510수를 수록했다.

그중 중국에서 수집, 정리, 출판된것이 286수이고 조선에서 수집, 정리, 출판된것이 102수이고 한국에서 수집, 정리, 출판된것이 122수이다.

여기서 우선 항일가요란 무엇이고 혁명가요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혁명가요란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가요를 지칭하고 항일가요란 항일투쟁중에서 창조되고 보급된 가요를 지칭한다.

항일혁명가요란 항일가요와 같은 개념으로서 항일혁명투쟁중에서 창조되고 보급된 혁명가요이다.

정의는 이렇게 내릴수 있어도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항일가요, 혁명가요, 항일혁명가요가 두루 의미가 통하여 적지 않은 사전이나 교과서에서도 항일가요도 혁명가요이고 혁명가요도 항일가요라는 식으로 사용되고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혁명가요를 더 큰 개념으로 쓰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즉 항일가요를 혁명가요의 한부분으로 취급한다.

한국에서는 이따금씩 항일투쟁, 항일투사라는 단어는 쓰지만 항일가요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의병시가, 독립군시가라는 말을 쓰는것 같다.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편찬자는 이 책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의병시가, 독립군시가를 우리의 항일가요와 같이 취급하면서 조선과 한국의 의병가요, 독립군가요로부터 중국의 동북지구에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웠던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인민항일련군, 화북지구에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싸웠던 조선광복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들이 창작하고 보급한 혁명가요 그리고 1945년 8.15해방후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까지 즉 전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 보급된 혁명가요를 모두 수록대상으로 삼았다.

다시말하면 이 책에 수록된 520수의 시가중에서 항일가요와 기타 혁명가요 그리고 민족의 독립구국의 원망과 인민대중의 혁명의식과 해방의 갈망을 담은 가요들이 다 포함되어있다.

주지하다싶이 항일무장투쟁은 한차례의 민족전쟁으로서 계급과 의식형태를 초월하여 독립과 구국을 갈망하는 민족적인 분투였고 항일가요 또한 한겨레의 가슴에서 터져나왔고 한겨레의 목소리로 불리웠지만 항일전쟁승리후의 리념과 체제의 갈등으로 인해 수집, 정리, 출판중에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질되었으며 수많은 변종이 생겼다.

물론 아직까지도 리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항일가요의 원형을 제대로 복원할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지 못하였지만 편찬자는 중국, 조선, 한국에 널려있는 텍스트들중에서 될수록이면 제일 처음 수집된것들을 찾고 될수록이면 그것들에 대하여 손을 대지 않고 출간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혁명가요중에는 천성적으로 계급성이 강하고 의식형태의 선전도구로 창작된것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텍스트에 대하여서

는 어쩔수없이 누가 좋아하면 누구는 싫어하기 마련이다. 레를 들면 “쏘련 옹호가”, “레닌탄생가”, “프로혁명가”, “의회주권가”와 같은 가요는 곧 무산계급의 리념과 리상에 대한 송가이고 또 한 부류의 항일가요는 일제침략자에 대한 투쟁과 무산계급의 혁명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누가 싫어한다고 해서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또 계급사회에서 로농대중의 궁핍한 삶을 반영하고 일제침략자들의 강압과 수탈을 못이겨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떠나 이국타향에서 피바다와 불바다를 헤매는 동포들의 슬픔과 설음을 표현한 가요도 소수 수록했다. 이런 부류의 가요를 항일가요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민족의 생존상황과 정신존재를 직접 나타내는것으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500여수의 중국, 조선, 한국에 널리있는 항일가요들과 기타 혁명가요들을 책으로 묶고보니 큰일을 해낸것처럼 가슴이 뿌듯하고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되고 또 새삼스럽게 세상이 변하기는 좀 변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바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도서의 출판은 상상할수 없었던것이 아닌가.

이상 편찬자로서의 회포를 표명하고 이제 아래에서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 항일가요와 기타 혁명가요가 수집, 정리, 출판된 상황을 회고하려 한다. 이것은 앞으로 항일가요와 기타 혁명가요를 더 깊이 연구하는데 하나의 유조한 작업으로 될것이다.

2. 항일가요와 기타 혁명가요는 극히 개별적인 작품의 대부분은 천성적으로 전쟁문화의 산물이고 또 구전문학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므로 활자화된 출판물로서의 항일가요의 텍스트를 찾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

므로 필연적으로 수집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출판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1945년 8.15해방후에도 조선은 독립되자마자 다시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비운을 맞게 되며 심지어는 리념과 체제의 대립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며 중국에 남은 100만의 중국조선족은 전국해방전쟁시기에도 계속 항일투쟁중에서 빛낸 민족의 생명저력과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휘황한 업적을 쌓아올리며 드디어 중화의 대지에 56개 민족의 하나로 정착하고 점차 중화의 선진민족의 하나로 이미지가 부상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길에서 중국인민이 겪은 수많은 곡절을 함께 겪으면서.

이런 와중에 항일가요와 기타 혁명가요의 수집, 정리, 출판도 복잡다단한 길을 걸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①중국에서 항일혁명가요의 수집, 정리, 출판

지금까지 찾아볼수 있는 정식으로 출판된 책으로서 《혁명의 노래》는 항일혁명가요를 수록한 첫번째 책이다. 연변주당위 선전부에서 편찬하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58년 9월에 출판한 이 책에는 “국제가”의 항일혁명가요 70수를 수록했다. 이 책에는 “유격대행진가”(“유격대행진곡”), “연길감옥가”, “의회주권가”, “결사전가”, “동북인민혁명군가” 등 주요한 항일혁명가곡이 수록됨.

이 책의 특징은 극히 개별적인 몇개 단어외에 항일군민들이 부르던 가요의 원형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뜻이 통하지 않는 어떤 구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필자는 그때 몰랐지만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혁명의 노래》를 출판하기전에 1957년 8월에 연변대학 사회과학계에서 등사판으로 《항일투쟁시기 노래집》(1)을 출간하였었다.

이 등사판의 “서두말”은 다음과 같다.

이 노래집은 항일투사 김선동무가 보존하고있던 수첩에서 원문 그대로 등사한것인데 조선민족사 연구소조 선생들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합니다.

1957년 8월 연변대학 사회과학계.

여기서 관건적인것은 “김선동무가 보존하고있던 수첩에서 원문 그대로 등사” 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김선은 누구인가?

김선(金善, 1919.)은 조선족녀항일투사로서 1932년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하여 30여차의 전투에 참가했고 1940년 1월에 부대와 함께 쏘련에 건너가 국영농장에서 로동, 1945년 8.15해방후 목단강지구에서 사업하다가 1949년 연변지구에 전근되어 계속 사업하다가 1958년에 연길시 메리야스공장에서 리직했다.

듣는 말에 근거하면 김선동지는 건국후에 자기의 수첩을 유관 부문에 바쳤는데 후에 연변박물관이 정식으로 성립되면서 거기에서 보관하였다고 한다. 연변대학 사회과학계에서도 그것을 빌어다 등사판 《항일투쟁시기 노래집》을 찍고 돌려줬다고 한다.

아무튼 이 등사판에는 118수의 항일혁명가요가 수록되었는데 “서두말”에다 쓴것처럼 “원문 그대로” 찍은데 그 가치가 있으며 제목, 본문 할것없이 항일투사 김선의 수첩 그대로 찍었다는데 그 가치가 있으며 후에 중국조선족들이 항일혁명가요를 수집, 정리, 출판하는데 기초적인 작용을 놀았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앞에서 언급한 《혁명의 노래》에 수록한 항일혁명가요 70수 중 《김선수첩》에서 선록한것이 60수나 된다.